

전북

민노총, 전주 시내버스 봉쇄 시민 큰 불편

차고지 기습 245대 운행 막아...경찰 투입 운행 정상화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두 달을 넘긴 가운데 민노총 조합원들이 14일 기습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막아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임시 차고지로 쓰는 전주시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버스 245대의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노조원들은 차량 운행에 나선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일일이 대체근로자인지를 확인했고 이 때문에 차고지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과 회사 측 관계자 등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차량이 부서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합원 4명을 연행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정상 운행된 버스는 전주시에 대체버스로 투입하고 있는 전세버스 70여 대 뿐이었다.

행정기관에는 안일한 대응을 한 경찰과 전주시청, 기습적인 차고지 봉쇄로 큰 불편을 겪은 노조를 질타하는 시민의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불만의 글이 폭주했다. 경찰은 오후 3시에 임시 차고지에 경찰력을 투입해 봉쇄를 풀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

여기에 민노총이 전체 운행 버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버스 투입도 법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할 방침이어서 최악의 교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민노총은 "전주시와 경찰 등이 일방적으로 회사 편을 들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조합원의 구속을 각오하고 단호한 투쟁을



민노총 조합원들이 14일 임시 차고지인 전주시 반월동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봉쇄해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남뉴스

전개하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전주시는 전세버스를 최대한 확보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도 시내버스에 경찰관을 탑승시키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남원시는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상고심은 업체가 승소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업체가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자를 포함해 26억7747만원을 물어주라'는 거س촉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부시장은 "종합 감사결과 당시 남원시는 업체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자초했고 지방자치회의 의결도 없이 많은 상태에서 계약체결과 문제 발생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물어 당시 시장과 공무원에게 구상금 청구와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변산 관광개발 무산 위기

LH, 조성승인 절차 중단...5월 지구지정 효력 상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난 2003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후 10여 년째 표류하다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전북도로부터 변산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오는 5월이면 관광지 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돼 또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안군은 변산 해수욕장을 미래지향적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새만금 관광시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2일 전북도로부터 변산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LH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시흥협약을 맺고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LH공사가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수익성이 낮다'며 지난해에 조사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중단해 관광조성계획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안군은 LH공사의 사업포기후 토지공사 성과물을 인수한 뒤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직접 시

행하고 있지만 지구지정 효력 기한인 오는 5월 1일까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지구 46만6000㎡에 지난 1월 10일자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8만9000㎡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설계 등 제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도 군청을 향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변산지역발전 협의회 관계자는 "군수면담 결과 '기다리라'는 말만 영무세처럼 하고 있다"면서 군청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前시장은 市 부실재정 책임져야”

남원시, 공무원 등에 구상금 27억 청구

남원시가 부실행정으로 재정손해를 보게 한 전직 시장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에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7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어 사업지구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전직영전 시장과 박모 계약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조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는 2001년 사업장을 확보하

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과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 뒤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대산면 대곡리 고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부지를 확보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의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자 계약을 파기했고 당초 계약업체인 ㈜정원을 인수한 ㈜거성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에 도산했다며 88억원을 배상하라며 2005년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남원시는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상고심은 업체가 승소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업체가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자를 포함해 26억7747만원을 물어주라'는 거스촉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부시장은 "종합 감사결과 당시 남원시는 업체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자초했고 지방자치회의 의결도 없이 많은 상태에서 계약체결과 문제 발생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을 물어 당시 시장과 공무원에게 구상금 청구와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순창군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지난 10일 팔덕면 복지회관에서 85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합동세배를 하고 있다. 이날 합동 세배에는 팔덕면 애향운동본부(회장 이동주) 주관으로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군산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접수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 임대주택' 136호(기존 주택 100호·신혼부부 36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14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

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이다. 기존주택은 21~25일, 신혼부부는 28~3월 4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정읍시는 농촌진정 정비와 불량주택 개량 등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총 47억5000만원을 투입해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 용자지원에 농촌주택 개량사업(95등)을 실시한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농립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작성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인 '농촌 저에너지 친환경 표준도'를 활용한다.

또한 시는 1억4600만원을 들여 1년이상 방치돼 있는 농촌 빈집(통당 100만원 보조지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익산시 보건소 '온라인 발급서비스' 제공

익산시 보건소는 제증명 검사 후 결과서를 받아 위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제증명은 식품관련업 종사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기숙사 등 단체 생활자에게 발급되는 건강진단서(국문·영문)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보건소 홈페이지(www.iksan.go.kr/health)에 접속한 후 하단의 제증명 발급 버튼을 클릭해 개인정보 입력→공인인증서 및 제증명 선택 과정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전북취재본부=류영정기자 ryu0418@

'구제역 예방' 김제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김제시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 개최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가 시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정월대보

름 행사를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입석 줄다리기와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KTX 전라선 구간 8월부터 시범 운행

KTX가 전라선 구간을 8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순천을 연결하는 154.2km의 전라선 북선전철화 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모든 구간 개통에 앞서 KTX가 8월부터 단선으로 시범 운행한다.

한편 2005년부터 9700여억원이 투입된 전라선 북선전철화 사업의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가량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KTX가 운행되면 서울(용산)에서 전주까지 새마을호로 3시간18분 소요된다. 2시간12분으로 대폭 줄어들고 익산에서 갈아타고 전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한편 2005년부터 9700여억원이 투입된 전라선 북선전철화 사업의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가량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화정동 토지 488평 건평 759평, 3층건물 감평가 27억 최저가 19억. 근린주택: 담양군 금성면 월림리 토지(209평 건물)60평, 현식당운영중 8천3백만. 근린상가: 남구 백운동 토지105평 건물82평, 감평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상공업지: 평산구 쌍림동 내대지 198평, 감평가 8억 최저가 5억2천만. 주유소: 서구 세하동 토지52평 건물138평, 서광주역부근 감평가 12억 최저가 8억6천만. 기타·토지: 현향내대지 5천8백만.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목포 옥암동 사우나(2+3층) 4층 빌딩매매: 대지(중심상업): 210평, 건물(4층): 470평(2007년신), 매매가격: 23억원(대출 14억원 포함). 고층근린주택: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지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지: 1500평 @ 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구 건너편), 건물: 1500평 @ 200평 공적2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지: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적, 무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6-644-4265, FAX. 523-8558

중랑공인중개사 010-3162-4989. 상가건물: ☆ 보증금: 10억원, 월세: 4,300만원, 매매가: 73억원, ☆ 보증금: 8억원2천, 월세: 1,330만원, 매매가: 28억원.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322㎡, 건물: 95㎡, 매매가: 5천만원, ☆ 담양대전면 한재굴, 대지: 1,330㎡, 건물: 60㎡, 매매가: 2억9천만원. 대지.전.담.임야: ☆ 치평동 대지: 370㎡, 매매가: 13억5천, ☆ 마북동 대지: 1,350㎡, 매매가: 22억원. 장성 남면: 임야: 13,500㎡, 매매가: 4억5천만원. 공장부지: ☆ 광산구 양동, 집매가: 11,856㎡, 매매가: 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주고 싶으신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찰본과 영수증 본 손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223-1772, 223-1772 (광주중앙 신문빌딩, 대인동 삼일부동산)